

탐진강 수계 저류지 추진 주민 반발

“막대한 농경지 잠식 농민들 피해”

익산청 “조성사업 원점서 재검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장흥과 강진지역 흉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던 ‘용반 저류지’ 설치사업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익산청이 추진하려는 용반저류지(일명 저수지) 사업은 탐진강 본류 흉수에 대비해 장흥군 부산면 용반·금자리 일원 용반평야 1269ha(38만 4000여평)의 농경지를 매입해 저류지를 조성, 359만5000m에 달하는 저류 용량으로 흉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익산청은 지난 2005년 6월에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부터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에는 전남도와 장흥군, 강진군,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측과 하천 기본계획 환경 성 검토를 협의한데 이어 최근 3차례의 주민 설명회 과정 등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다 최근 장흥군과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한 상태다. 용반 저류지 사업 실체는 장흥군이

지난 20일 농경지 소유 농민 대표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은 이 자리에서 “용반 저류지 사업은 장흥댐이 조성된 이후 흉수·치수 피해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행정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악질의 막대한 농경지를 잠식시켜 농민들에게 경제적·문화적(간접 피해) 피해를 입히는 비현실적인 사업이라며 반대 의견을 지난해 11월 익산청에 전달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김환 부산면 번영회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은 지난 22일 현지 의견청취에 나선 익산청 관계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전하고 저류

지 사업 강행시 집단행동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청 측은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당시 장흥군 관계자(부군수)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용반 저류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의를 토대로 추진하게 됐다”며 “이제 와서 주민들과 해당 자치체가 반대한다면 저류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천변 저류지 사업은 일반적인 공공사업(댐, 도로개설 등)과 같은 토지보상비 외에 영농(실농)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간접보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한강변 나주배즙 마라톤대회

‘2012년 나주배즙 마라톤대회’가 지난 25일 서울 불광천 등 한강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풀 코스 등 4개 부문에 1000여명이 참가해 나주배로 만든 배즙을 먹으면서 달리는 이색 행사로 진행됐다.

장성호서 올해도 전국규모 조정대회

장성군 5년 연속 유치

7월 전국선수권 대회

장성군이 지난 2008년부터 5년 연속 전국규모의 조정대회를 유치했다. 장성군과 군 체육회는 “오는 7월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제54회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기로 최근 열린 대한조정협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군의 성공적인 전국대회 개최 경험과 경기장 인프라, 유치 열기 등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역체육인 유치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대회 유치를 위한 장성군 체육회 관계자들의 끈질



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2008년 전국 체육 대회와 2009년~2011년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 개최후 5년 연속 장성호 조정 경기장에서 전국대회를 개최, 명실상부한 수상 스포츠의 일

반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국 조정선수권대회는 남대

일반부, 여대 일반부, 남고부, 여고부, 남녀 중등부로 나눠 싱글 스컬과 더블 스컬, 무타페어, 에이트 등 30개 종목에서 승부를 겨룬다.

장성군 관계자는 “대회를 앞두고 전국의 조정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장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yongho@

운주사·고인돌유적지 문화해설사 고정배치

화순군 3월부터

화순군은 오는 3월부터 관내 문화 유적지인 운주사와 고인돌유적지 2 개소에 영어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정배치한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목요일은 고인돌유적지에, 토요일은 운주사에 영어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고정 배치해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모든 관광해설을 영어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3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주5 일 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 영어에 관심있는 학생 등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전복사업으로 부가되세요!

전남 완도에 있는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원 RIS 사업단으로서 전복으로 성공하려는 기업이나 창업자를 위해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면서 중국, 일본 등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복 건제품, 통조림, 수출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이제 완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하세요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면, 사무실, 파일럿프랜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통조림, 연질캡슐 생산라인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등 해외투자 기업체의 국내이전을 준비중인 사업가분
- 청년 취업희망자, 은퇴자 소규모창업 희망자 분
- 해외 동포, 중국인, 일본인 등 해외 기업가 완도에서 사업하실분
- 북경, 상해 정주 수산물 매장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 많은 연락과 상담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 부설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

문의전화 : 061-550-1717

메일 : realgon85@gmail.com · 홈페이지 : www.wapic.co.kr

순천만 변천사 자료 보내 주세요

순천시 습지센터 보존 사진·논문 등 수집

순천시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손꼽히는 순천만의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순천시는 “순천만은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와 더불어 세계적인 명품 생태학습장으로

정착됨에 따라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순천만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순천만 변천사 자료를 수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접수처를 마련하고 순천만과 관련된 모든 자료 원본을 기증받을 계획이다.

수집대상은 순천만의 모습

이 담겨있는 그림과 사진, 기록

광양시-경남 하동군 2차 고생발전협의회

섬진강을 사이에 둔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의 상생발전과 공동협력 해결을 위한 제2차 고생발전협의회가 지난 23일 하동군청에서 열렸다.

광양시와 하동군은 섬진강 살리기의 하나로 하류의 염분농도 검증을 위한 측정 장치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섬진강 단수 유량 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응력을 견의하기로 했다.

특히 섬진강 재첩 채취 경계수역을 둘러싼 양 지역 어민들 간 갈등은 어민 대표와 공무원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해결하기로 했다.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섬진강 포구 80리에 둘레길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엑스포’ 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곡성 도립사 오토캠핑장 리조트 5월 개장

여수박람회 개장 맞춰…4월부터 예약 가능

곡성군 도립사 오토캠핑장 리조트<조감도>가 오는 5월 문을 연다.

곡성군은 “오는 5월 12일 시작되는 여수 세계박람회 방문객 편의를 위해 리조트를 임시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급증하는 여가 수요와 다양한 레저문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연친화 도립사 오토 캠핑장은 임시개장에 앞서 우선 4월 1일부터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다.

군은 도비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을 투자해 도립사 오토캠핑 리조트를 갖췄다.



곡성군 관계자는 “도립사 캠핑장이 매년 증가하는 기차마을 관광객들의 숙박난을 해소하고, 여수 세계박람회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군 지역상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전남 축산농가 공동브랜드 ‘녹색한우’ 유통센터 준공



전남 축산농가 공동브랜드인 ‘녹색한우’ 유통센터 준공식이 지난 24일 나주시 삼포면에서 열렸다. 유통센터는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3443m² 부지에 건물

1520m² 규모로 지어졌으며, ‘녹색한우’ 참여농가에서 출하하는 연간 4천400여마리의 한우를 납품받아 가공한 후 전국에 유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전남도 제공)